

익숙한 듯 새로운

광주신세계갤러리 연말기획전 김상연·김은경·윤상하 등 6명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을 찾다.’ 올해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해온 신세계 갤러리 연말 기획전(2023년 1월9일까지)을 준비했다.

‘Picture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표현매체를 통해 새로움을 찾아가는 지역 작가 6명을 초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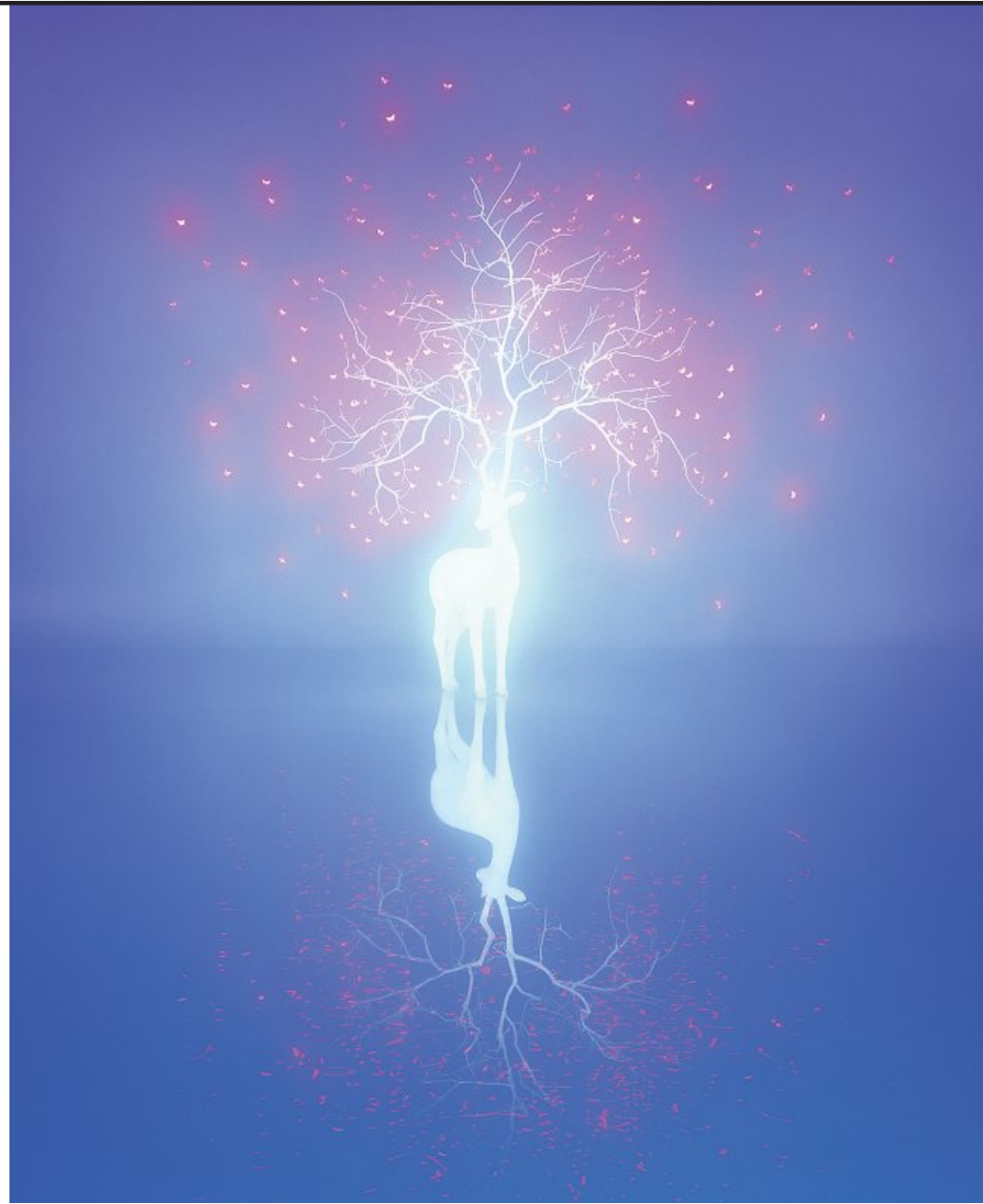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만의 예술언어를 찾으려 애쓰는 건 작가의 숙명이다. 특히 끊임없이 사유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만들어낸 작품을 고정화된 장르로 풀어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장르 속에서 재해석해내는 과정은 관람객에도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작가의 독창적 이미지가 회화, 판화, 사진, 애니메이션, 영상, 조각, 설치 등 각각각색의 매체로 표현된 현장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영상에서 시작해 회화, 설치, 조각으로 확대되고, 회화와 사진 속 이미지가 영상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김상연 작가는 회화 작품 ‘나를 드립니다’, 영상 작품 ‘생활지음’을 통해 세상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목조각 설치작품도 전시중이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김은경 작가는 ‘Sit on the fence’를 통해 환경을 둘러싼 의문과 불안감을 이야기한다. 모순이 가득한 불안정한 상황과 더불어 환경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회복과 극복을 꿈꾸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작가 이정록은 제주도에서 ‘생명나무’ 작업 중 듣게 된 흰사슴에 대한 설화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고대부터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슴 뿔이 신



이정록 작 ‘LUCA’

의 뜻을 감지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신비로움을 느꼈고, ‘LUCA’ 시리즈를 진행했다.

윤상하 작가는 ‘Dream land’는 도시개발과 노후화로 폐장된 놀이공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가는 환상의 세계에 몰래 등장해 놀이기구를 즐기는 아이들이 보인다.

정택용 작가는 우리가 느끼는 ‘연민’의 형태에 대해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며 작업했고, 그 소재로 거미줄에 갇힌 벌레를 생각했다. 작품은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된다.

이이남 작가는 에드워드 호퍼의 ‘바다가 보이는 방’과 ‘밤샘하는 사람들’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를 전시중이다. 광주신세계는 이이남 작가와 협업, 백화점 본관 외벽을 가득 채운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1월2일 까지 오후 6시-밤 10시)도 운영중이다.

‘앨리스 인 신세계(Alice in SHINSEGAE)’를 주제로 건물 외벽을 활용해 한 편의 동화 같은 콘텐츠를 선보인 작품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티브를 따 토끼를 따라 선물상자 가 된 신세계백화점을 여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분 50초간 진행되는 영상에서는 앨리스의 토끼가 거대한 선물상자 안으로 들어가 겨울동화 풍경 속에서 고흐 등 명화 속 인물을 만나는 마법의 판타지가 펼쳐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북·해외 예술인들 통일을 꿈꾸다 ‘...이름없는 전사’ 전 29일까지 BHC갤러리

15일 기념행사 개최

남북·해외 예술인들이 분단을 넘어 통일을 꿈꾸는 행사가 열린다. 지역의 미술가들과 시인, 해외 거주 시인들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반미,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통일을 향한 이름 없는 전사’전이 오는 29일까지 BHC갤러리(예술의 거리 뒷골목)에서 열린다. 기념행사는 15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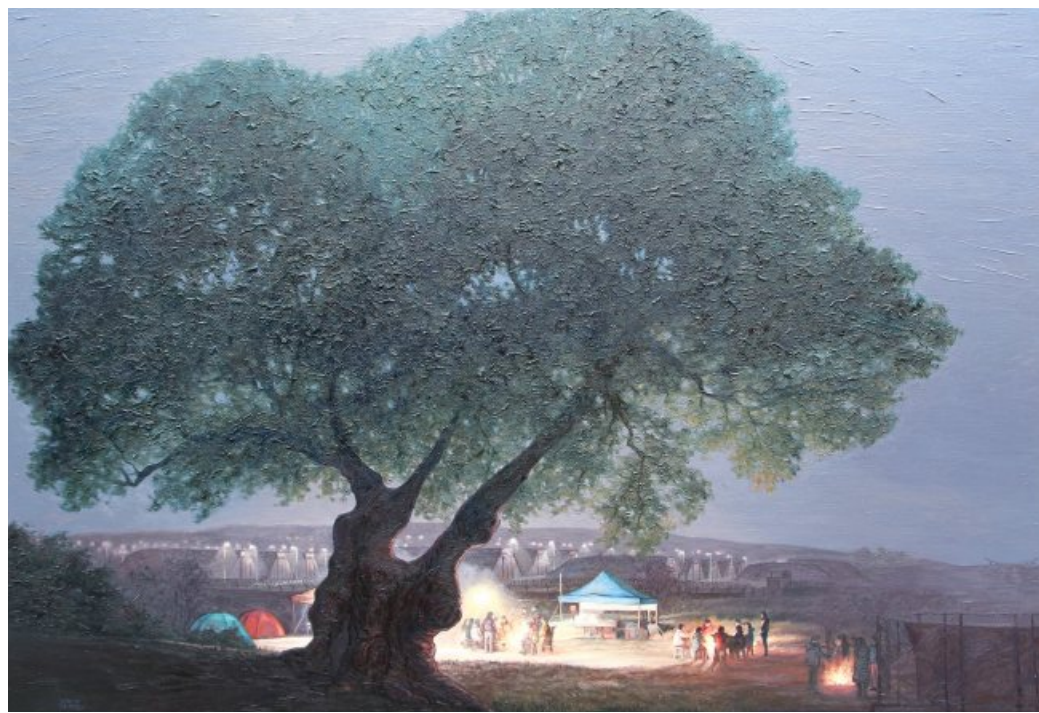
전시에는 노주일·김광례·조현·김화순·이상호·이재철·이사범·류기정·이관수 작가가 참여했다.

김광례 작가의 조각 작품 ‘우상:愚像(IDOLA)’라는 권력을 맹종하는 헛된 수사 속에서 인류는 얼마나 많은 재앙과 비극, 아픔, 슬픔, 희생을 탄생시켰는가를 보여준다.

김화순 작가의 ‘하제 땀나무 아래서 평화를 공리하다’는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살터를 잃어 버린 군산 하제마을에서 평화를 꿈꾸며 매달 한 번씩 열리는 팽평문화제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이상호 작가의 ‘통일염원도’는 식민과 분단, 저항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담은 작품으로 한 핏줄, 한 민족의 상징으로 남한의 어머니와 북한의 아들을 잇줄로 연결했다. 이사범 작가의 ‘빼앗긴 밥상’은 햄버거와 한식밥상을 함께 그려놓은 작품이다.

그밖에 노주일 작가의 ‘감옥에서 꿈’, 이관수 작



김화순 작 ‘하제 땀나무 아래서 평화를 공리하다’

가의 ‘누가 우리를 죽이는가’ 등이 전시된다.

시인들도 동참했다. 남녘시인 문병란·리명하·박학봉·리적·김순홍, 북녘시인 동기춘·리송일을 비롯해 재중 동포 홍용암·김 견, 재일 조선인 류계

선·안중근, 재미동포 이일영, 재독 동포 리준식 등이 함께 했다. 행사는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회광주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광주시민행동이 주관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해남 땅끝마을 ‘미항사’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항사 설화 이야기

‘담소’, 창작뮤지컬 ‘미항사’ 공연... 17일 해남문화예회관

땅끝마을에 위치한 아름다운 절 미항사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뮤지컬 ‘미항사’가 17일 관객들을 찾는다.

해남의 문화단체 ‘담소’가 주최·주관하고 전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공연은 경전과 불상을 신고 기다가 누웠다 일어난 곳이라 칭해지는 미항사의 설화를 뮤지컬로 풀어낸다.

공연은 16일 오후 7시 쇼케이스를 선보인 뒤 17일 오후 2시와 오후 5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본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의 제작·기획에는 최동근이, 예술감독에는 배창희가 함께한다. 극 중 보리 역에는 김다경, 비나리 역에는 정은영, 스님 역에 최승환, 꼬두메 역에 이원민, 신지역에 윤정훈, 읍차 역에 이소금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무대의 경우 참가자의 80%가 해남 주민이며 해남의 관광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관광자원 연계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되



비나리 역 정은영



꼬두메 역 이원민

고 있다.

예술단체 담소의 최동근 대표는 “창작 뮤지컬 미항사가 왜곡된 정의와 비뚤어진 권력의 시대에 그늘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노래가 되고 싶다”며 “지역 대표 문화예술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송가인과 함께하는 2022년 북구 송년음악회’

15일 북구종합체육관

‘북구민과 함께하는 2022년 송년음악회’가 15일 오후 4시 북구종합체육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광주시 북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은 구민들을 위로하고 다가오는 계묘년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초청가수로 트로트 여왕 송가인(사진)이 참여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광주예술고등학교 출신의 송가인은 ‘한 많은 대동강’, ‘물음표’, ‘밤차에서’ 등 인기곡을 선보인다. 이어 퓨전 클래식 CNS 윈드 오케스트라, 국악



가요 김근희, 트로트 류경·호세리, 포크&락 프롤로그 등 지역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입장권은 13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티켓팅 크에서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북구문화센터 2층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북구민에 한해 선착순 배부된다. 문의 062-410-8227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해설사 모집...20일까지 접수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 행사 기간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를 도울 전시해설사를 모집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간 개최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활동할 전시해설사를 8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최종 선발자는 다음달 4일부터 3월 말까지 총 83시간의 교육에 들어간다.

1부 기초 교육은 광주비엔날레 소개 및 전시해설사 기본역량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4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 12시간 진행된다. 2

부 심화 교육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 및 작가 설명, 외부 전시장 답사 등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며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17회 71시간 마련된다.

총 25회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시해설사 활동 완료자에게는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또한 행사기간 활동 우수자에게는 공로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 결과는 오는 23일 (재)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면접 심사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면접심사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